

# 2021년까지 제2 전시장 건립... '광주형 다보스포럼' 영근다

## 개관 15주년 맞은 김대중컨벤션센터

호남권 MICE산업 핵심인프라  
가동률 70%...서울 코엑스 다음  
김대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연 5~10% 성장 경제 활성화 기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개관 15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전시회, 회의,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호남권 MICE 산업의 핵심인프라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난 2005년 개관 이래 노벨 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 G20 재무차관회의, 세계한상대회, 세계수소에너지대회, 세계디지털총회,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열었다. 또 베이비페어, 펫쇼, 웨딩페어, 취업·창업박람회 등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와 대중가수 공연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이 밖에도 SWEET, 그린카전시회, 광주ACE Fair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12건의 전시회도 직접 개최했다.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제2전시장 건립 때문이다. MICE 산업이 골목 없는 대표적 지식산업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내 각 지자체가 앞다퉀 컨벤션센터의 문을 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창원 CECO

가 증축을 완료함에 따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전시면적 기준으로 국내 5위에서 7위로 인프라 경쟁력이 하락했다. 향후 2022년까지 국내 컨벤션센터는 현재 14개에서 약 20여 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EXCO, 대전DCC, 제주ICC, 부산BEXCO, 고양KINTEX 등 기존 전시컨벤션센터의 증축까지 완료되면 국내 컨벤션센터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세 번째 전시장 건립에 나선 대구 EXCO의 경우 막대한 예산부담에도 불구하고, 현 전시장 뒤편의 유휴상가 약 3만7000㎡ 규모의 총 1500억원의

보상비용을 지급하고 부지로 확보할 정도로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처럼 MICE 산업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에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

광주시도 최근 이용섭 시장이 제2전시장 건립 추진을 지시하면서 조만간 건립부지 확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용역을 거쳐 산업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와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 예산확보 등의 과정을 통해 이르면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의 MICE산업도 큰 흐름에서 보면 매년 5~10% 정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제2전시장 건립이 광주 전체의 MICE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주지역 MICE 산업은 출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국내 MICE 산업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MICE 산업 총 매출액은 5조584억원이며 이중 광주는 631억원으로 1.3%에 불과하다. MICE 개최건수에 있어서도 총 25만3385건 중 광주는 5941건으로 2.3%에 그치고 있다. 또한, MICE 산업 종사자 수도 국내 전

체 21,967명 중 광주가 700명으로 3.2%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처음으로 지난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사업을 추진했고, 광주시와 인천시, 경기 고양시 등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와 동일한 법적, 제도적 혜택을 받게 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문제부의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광주 MICE 산업은 '김대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맞게 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이번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에 계기로 지역 MICE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MICE 산업 리더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가동률 70% 수준으로, 서울의 코엑스 다음으로 높은 국내 최고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전시장 면적 기준으로 국내 7위권의 시설규모이지만, KTX와 SRT 개통으로 인한 수도권 교통편의 향상,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미향, 그리고 50여개의 골프장과 무등산 등 주변 레저 관광 여건 등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대한민국의 민주·인권·평화 대표 국제회의의 '김대중포럼'을 개최해 해마다 전세계의 저명 인사들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모여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광주형 다보스포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대중브랜드 활용 차별화·국제화 지역발전 도움되는 센터 만들 것”

### 정종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그동안 세계를 누비며 쌓아온 국제 경험과 역량을 고향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정종태 사장은 '혁신'과 '소통'을 강조했다.

정 사장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김대중 브랜드를 활용한 센터 차별화,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전시컨벤션 사업의 융복합화, 국제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취임한 정 사장이 새로 선포한 경영비전은 민선 7기 시장가치인 혁신·소통과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가 MICE 산업 글로벌화를 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정 사장은 “지난 34년간 재직했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떠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라는 중대한 자리를 맡았다”면서 “지난 1월 21일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창출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비전인 '소통과 혁신의 글로벌 MICE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경영혁신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각 분야별로 전략보고회를 하고, 최근 사업 위주의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도 마무리했다. 특히 젊고 유능한 직원들을 대거 팀장급으로 발탁해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새로운 경영비전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MICE 산업 글로벌화를 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전을 중심으로 차별화, 브랜드화, 국제화, 융복합화, 질적성장, 지역발전, 경영혁신 등 7가지 키워드를 경영 전반에 잘 반영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

고 있다.

그는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자립경영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10-10' 캠페인은 매출과 순이익은 10% 늘리고, 관리 비용은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사적 수익구조 개선 운동이다”면서 “전시컨벤션 1500건 유치와 함께 주관전시회 12건 성공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발굴과 함께 맞춤형 고객서비스, 컨벤션뷰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마케팅을 강화하여 유치성과를 높일 것이다”면서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주관전시회 12건도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화 노력 등을 통해 더욱 글로벌화되고 관련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미래를 거머쥘 발걸음 및 무역통상 전문기능도 강화하고 스포츠용품, 드론, 음악문화 등 유망분야 신규전시회 개발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외부행사 대행사업 추진 등을 통해 MICE 전문역량도 강화하고 신규수익도 늘리겠다”면서 “지방공기업으로서 세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일가정양립, 양성평등제도 등을 정착시키

고 김대중컨벤션센터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주민참여 경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종태 사장은 무안 출신으로 광주 금호고와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입사했다.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장, 미국 사카고 무역관장, 코트라 운영지원처장, 유럽지역본부장, KOTRA 아카데미 원장 등을 역임한 글로벌 전시통상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www.hyosungtoyota.com



## ALL NEW AVALON HYBRID



변화로 완성된 하이브리드의 품격  
과감한 본능을 깨우다

### 호성토요타

광주 전시장 : 062-371-8383 (문천역 3번 출구)  
순천 전시장 : 061-741-8111 (신대지구 사거리)  
전주 전시장 : 063-273-3222 (덕진동 원광대 한방병원 인근)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CAMRY HYBRID (배기량 2,487cc, 공차중량 1,655kg, e-CVT), 복합연비 : 16.7km/ℓ (도시연비 : 17.1km/ℓ, 고속도로 연비 : 16.2km/ℓ), 복합 CO<sub>2</sub> 배출량 : 95g/km, 등급 : 1등급  
※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